

투데이 칼럼

인품의 가치

‘재능이란 신이 주는 것이니 겸손해라. 명성이란 사람들이 주는 것이니 감사해라. 자만심은 자신이 주는 것이니 버려라’

겸손에 관한 명언을 찾아보았더니 AI가 검색해낸 것 중의 하나이다. 겸손의 뜻은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이다.

또 겸손은 바람직한 인간, 즉 뽕뽕이를 갖춘 인간의 자세와 태도이다. 요즘 유튜브 숏츠영상에 삼성그룹 이재용회장이 종종 등장한다.

최고기업의 오토로서가 아니고 ‘갑동적 율리’으로서의 모습이다.

그가 재벌이라서 더 돋보이는 것이 아니고 평범한 인간으로서도 선택하기 어려운 것을 소리 없이 행하기 때문이다.

그는 대기업 오토가 가진 전용기가 한대도 없다. 3대의 전용기, 2대의 헬기를 모두 없애고



홍 민 기
수필가

헬기 한대는 구호용으로 전용했다.

그래서 잦은 해외출장도 거의 단독으로 일반 여객기를 이용한다.

그는 특별한 스케줄이 없으면 회사 구내식당에서 직접 식판을 들고 식사하며 사원들과 어울려 대화하는 것을 즐긴다.

그의 아들은 미국에서 출생, 시민권이 있음에도 포기하고 한국군에 사병으로 입대하였다. 장교임대를 원하는 가족을 설득한 것은 아들 본인이다.

그는 20여년 전부터 측방촌을 찾았다. 그곳에서 무료진료 선행을 베푸는 유학과 의사를 만난 자리에서 가진 돈 1천만원을 기부하고 매년 수시로 방문, 정기 후원을 하고 있다.

그는 스스로를 낮추는 겸손이 더 존경과 존중을 받는다는 것을 철학으로 새긴 듯하다. 어느 행사이던 웃음과 공감으로 상대를 끌어낸다.

과거 후계승계 문제로 재판정에 서고 실형을 받아 투옥되는 과정에서, 그의 뜻이기보다

그를 미전실(미래전략실)의 뜻에 수동적으로 따른 것임에도 모두 자신의 잘못, 부덕의 소치로 반성, 사과하는 참을한 모습이 지금와서는 쇼가 아니었음을 느끼게 해준다. 요즘 회자되는 ‘사람이 되라’는 말.

그는 행동과 표정으로 말해주고 있다. 가진 것이 많거나 지위가 높을수록 남에게 베풀 수 있는 폭이 넓어지고 많아진다는 것을 몸소 느껴보았다.

그런 상황에서도 베풀기 보다 쥐고 움츠리며 오히려 더 많은 것, 더 큰 욕심을 위해 양심의 인성조차 버리는 사람들, 사람들은 유승준에게 이재용의 아들을 빔대어 말했다. ‘이 영상을 보고 느끼는 바 없나?’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 3세, 회장 줌으로 여겼던 이재용 회장이 나는 물론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한다. 가진 자의 여유? 그에게선 전혀 느껴지지 않는 진심이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치료받으러’ 이탈리아 도착한 가자지구 어린이들



가자지구 부상 아동과 치료가 필요한 어린이 환자들이 지난 29일(현지 시간) 이탈리아 참피노 군 공항에 도착해 군 수송기에서 내리고 있다. 이들은 이탈리아 내 여러 병원으로 이송될 예정이다.

中 열사기념일, 묵념하는 시진핑 주석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30일(현지 시간) 중국 베이징 텐안먼 광장에서 열린 열사기념일 행사에 참석해 인민영웅기념비에 헌화 전 묵념하고 있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설

공공 산후조리원, 선택 아닌 필수

남원시 고죽동에 들어서는 공공산후조리원은 오는 11월 개원을 앞두고 막바지 작업에 한창이었다. 문제는 ‘운영비 확보’다. 공공산후조리원은 남원의료원 인근 3700㎡ 부지에 지하 1층~지상 4층, 연면적 2410㎡ 규모로 건립된다.

연간 운영비 14억여 원 중 전 복도가 부담하기로 한 4억2000만원(30%)을 제외한 나머지 10억여 원이 아직까지 확보되지 않았다. 남원시는 총 공사비 132억 원 중 97억 원을 부담했다. 하지만 자체 재원으로 매년 10억여 원의 운영비를 책임질 여력은 없다.

이 조리원은 전북 동부권 순창·임실·장수뿐 아니라 전남 곡성·구례, 경남 산청·하동·함양 등 지리산권 산모들을 위한 거점 시설이다. 이들 지역의 임산부는 인근에 민간 산후조리원이 없거나 부족해

전주나 광주 등 대도시로 ‘원정 출산’을 감수해왔다.

산후조리원의 평균 이용료는 286만1500원, 평균 이용 기간은 12.6일이다. 공공산후조리원은 2주 기준 평균 182만원으로, 민간 대비 절반 수준이다. 남원시의 전체 인구는 7만5000명이다. 저출산·인구 감소 위기 지역이다.

인구 감소 지역 11개 지자체는 ‘공공산후조리원 운영비 국가 지원 촉구 결의’를 공동 채택하며 정부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11개 시·군에서 운영 중인 공공산후조리원의 연간 총 운영비는 120억 원인 반면에 연 수입은 20억 원에 불과하다. 매년 100억 원의 적자를 보고 있는 셈이다. 인구 감소 지역의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공공 산후조리원이 필수적이다.

한국여성사회자협회 출범식

한국여성사회자협회가 지난 1월 22일 서울 역삼동에서 출범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출범식에는 협회 회원들과 다양한 제휴업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출범식은 개회사를 시작으로 내빈 소개, 회장 인사말, 협회의 향후 활동 및 제휴업체 소개, 운영진 및 이사단 임명장 수여식 순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협회의 방향성과 목표를 공유하는 시간이 마련되어, 참석자들에게 한국여성사회자협회의 비전을 명확히 전달하는 계기가 되었다.

김수연 회장은 “한국여성사회자협회는 혼자보다 함께 할 때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믿을 아래 출발했다”며, “협회 회원들과 제휴업체가 한 팀으로 성장하고, 이를 통해 창출된 가치를 다시 사회에 환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출범식을 통해 한국여성사회

자협회는 사회자라는 직업군의 발전과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

협회는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제휴업체들과 협력하여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업계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한국여성사회자협회는 헤어·메이크업, 스튜디오, 의상, 에스테틱, 웰스케어 등 여러 분야의 업체들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회원들이 전문성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이번 출범식은 업계 관계자들이 서로 교류하고 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무리되었다.

협회는 업계 종사자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함께 발전하는 공동체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힘을 기울인다.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송주빌딩 4층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